

#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와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mily Life Problem and Stress-level Perceived by Urban Homemaker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 貞 玕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 Jeong Woo Lee*

안성농업전문대학 생활교양과

조교수: 崔 德 卿

*Dept. of Cultural Learning*

*Anseong National Agricultural*

*Assistant Prof. : Duck Kyung Choi*

### 목 차

<p>I. 서 론</p> <p>II. 이론적배경</p> <p>1.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문제</p> <p>2.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p> <p>3.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문제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p> <p>III. 연구방법</p> <p>1. 연구문제 및 가설</p> <p>2. 조사대상</p> <p>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p>	<p>IV. 결과 및 분석</p> <p>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성격</p> <p>2.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도</p> <p>3.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정도</p> <p>4. 배경변인별 가정생활 문제 인지도와 스트레스 인지 정도간의 상관관계</p> <p>V. 결론 및 제언</p> <p>참고문헌</p>
--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 1) to identify the overall levels of family problem and stress perceived by urban homemakers. 2)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between them.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amples were chosen among 369 homemakers living in Seoul. These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mean,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The significant results are as follows :

- 1) Urban homemakers perceive 'economic problem' as the highest level. 'children problem'

as the second one and 'health problem' as the lowest one in family life problem.

There is significant difference in family problem perception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husband's job, children's numbers, and living level.

2) There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ss level according to independence variables.

3)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the family problem perception and stress level of urban homemakers.

In conclusion, we come to know every field of family life affects homemakers as stressor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for us to understand and prevent family life problem in order to release stress perceived by homemakers.

## I. 서 론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변화 양상·추세는 가정내외적으로 빠른 변화와 성장을 초래하였으며 새로운 서구문화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들은 외면적으로는 핵가족화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전통적인 규범과 가치관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이효재, 1983). 이러한 변화 추세는 가정의 구조적 형태와 가치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어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과거에 비해 보다 많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발전에 따른 개인의 욕망도 점차 복잡하고 다양화 됨에 따라 가족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현대 기혼여성들은 과거의 주부의 역할과 현대에서 요구하는 주부의 역할을 모두 수행해야 하는 이중적 역할구조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복잡한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야기된 개개의 가족 구성원의 욕구 증대 및 다양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많은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가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가 가정생활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생활상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한다. 이는 가정문제를 예방·치료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모든 가족의 핵심적 관리자인 주부의 정신위생 상태도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생활문제의 인지도를 파악하고, 또한 주부들이 받는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두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주부들의 가정 생활문제 및 스트레스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주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심리적·정서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인 동시에 행복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이룩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가족구조의 내적인면 즉, 부부간의 인간관계와 가사분담 등에 많은 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로 하여금 가정생활에서의 전통적인 위치만을 강요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 1) 부부문제

산업화로 인한 영향은 우리의 가족구조를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시켜 범위가 좁아지게 되었으며 부부의 애정이 한 상대자에게로 집중되어 그 감정의 도가 강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안정은 주로 두 사람 사이의 성격의 조화와 감정조절 및 융합에 의존하게 되고 한 가족의 영구성도 전적으로 부부관계가 계속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이와 같이 현대가족은 그 안정성과 지속성이 주로 부부관계에 의

존되며 부부간의 상호관계가 현대 가족의 증추를 이루고 있다(김명자, 1977).

Burgess(1939) 등에 의하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부의 의견일치 여부는 결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여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일치 할수록 만족을 얻는 정도가 높고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정정순, 1973). 또한 배우자의 도움과 결혼만족도는 정적인 관련이 있어서 배우자의 도움에 만족할수록 생활만족과 결혼만족은 높아진다(임정빈, 1986).

### 2) 자녀문제

현대에는 피임법의 발달과 가족계획의 실천으로 자녀출산과 부모의 역할이 선택적일수 있게 되었으며 가정의 중요한 기능인 교육의 기능도 사회의 전문기관에 이양되므로서 약화되었다. 그러나 조기교육의 영향으로 도시 가정의 자녀들은 3~4세부터 이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자녀양육의 역할이 어머니에게로만 축소 되므로서 주부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특히 취업주부들의 경우 자녀양육 및 교육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이효재, 1973).

한편 현대사회의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 자녀간의 세대차를 심화시키고 부모와 자녀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조장하게 된다. 자녀가 사춘기에 달하면서 자녀의 재능이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고 따라서 자녀에 대한 희망과 꿈이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적응의 실패는 곧 심각한 청소년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이 가족과 사회의 관계가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 가치관,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도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요구되며, 자녀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는 부부의 공동 관심사로서 가족생활의 어느 영역에서 보다도 부부가 함께 의논하며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다(이효재, 1971).

### 3) 친·인척 문제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서 그들에게 부부관계가

생기고 그들이 전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어린 자녀가 생기게 되면 성혼한 자녀와 그들의 부모 사이에는 전반적인 재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지금까지 부모에게 중점적으로 기울여온 시간과 관심의 초점을 부부관계로 전이하면서 동시에 부모와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새롭게 조성해 나가야 하며 부모는 그들대로 변화된 관계에 적응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종전의 기대를 점차 고쳐나가며, 종속자로 취급하던 그 타당성을 버려야 한다(이효재, 1983).

특히, 현대에는 며느리의 시집살이가 많이 변화되고 시어머니의 권위와 역할이 약화되어 며느리가 과거처럼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호간에 변화하는 지위와 역할을 인식하여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성격상의 갈등과 역할분담에 대한 상반된 기대로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 4) 가사 작업 수행문제

서구 산업사회에서는 가사분담에 대한 문제점이 부부 및 가족전체의 협력으로 극복되어가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의 가정 특히 도시 가정에서는 가족성원간에 가사를 분담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여 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부부들은 전통과 인습에 얽매어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Hoffman의 보고에 의하면 남편이 살림살이에 참여하는 정도가 직업여성의 아내를 둔 경우 훨씬 높으며, 가사에 관한 결정권도 부부공동인 것이 비취업 여성의 경우보다 두드러지게 높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족에서는 주부가 직업여성이라고 해서 남편의 가내 역할이 별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이효재, 1983).

자녀들 역시 주부의 가사일을 부분적으로 도우며 자기 주변의 물품들을 정리하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호 가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주부의 일방적인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 5) 건강문제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은 신체

적·정신적 질환의 원인적 요인이 되는것으로 보고 있다. Selve(1956)는 스트레스와 질병을 관련시킨 연구에서 만약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또는 강도가 고조된다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스트레스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일반적 질병으로는 위궤양, 궤양성 대장염, 기관지 천식, 관절염, 신장질환, 알콜중독, 불면증, 암, 신경증이라고 했다. 또한 Brown등(1972)은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과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 우울증, 자살시도, 신경증과의 관계를 제시하였고(이평숙, 1985, 재인용), 이평숙(1985)의 연구에서도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생활스트레스임이 밝혀졌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사건을 계속 경험하면 질병에 대한 신체의 저항력이 감소되어 질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신체적 장애 증상은 30대와 40대 가정주부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고(이세종, 1974), 이 신체적 증상의 주요 원인은 남편에 의해 받는 스트레스였다(김정일등, 1987).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 결여, 가정주부의 역할에서 오는 딜레마, 가정생활에서 누적된 정신적 갈등등이 주부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며, 신체적 증상을 수반하기도 한다.

#### 6) 경제문제

일반적인 가정생활에 있어서 살림살이를 맡은 주부의 책임은 가족을 위한 의·식·주를 관리해야하므로 소비생활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고, 이 소비생활은 가계예산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리적인 가계관리가 필요하다. 도시 가정의 소비생활이란 전적으로 시장에서 사들이는 상품에 의존하고 있고 물건을 사는 주부의 입장에서는 물건의 질이 좋은가, 가격이 적절한가, 또는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등에 대하여 언제나 불안을 느끼게 된다. 더욱이 도시의 산업화는 우리의 가정을 소비지향적이 되게하고 있으며 제한된 소득으로 가계를 담당 운영해야하는 주부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현대처럼 모든 것이 가속화하는 사회속에서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과 충분한 문화적 혜택을 주려는 의욕이 강하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하여 도서를 마련하거나 음악이나 미술등의 과외활동을 시키게 되며 현실적으로 제한된 가계로는 충분한 뒷바라지를 하지 못하게되고 부모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마저 들게 된다(이효재, 1973).

### 2.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 1) 스트레스의 개념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매우 널리 쓰이고 있으나, 아직도 명확하게 정의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도 스트레스연구자들은 스트레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는 생리 및 심리·사회적 차원에서 파악되고 있으며 주로 세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①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이 개념은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초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들은 주로 이 입장을 취하여 왔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Selve(1985)의 "어떤 것이든 그 요구에 대한 신체의 비특정적 반응"이라는 정의로 대표되며,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자극(Stressor)에 대한 반응이 스트레스인 것이다(김정희, 1987, 재인용).

#### ②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하나의 자극으로 보는 입장으로, 여기에는 외적인 환경적 조건으로부터 내적인 생리적 현상까지 다양한 자극들이 포함된다.

Lazarus와 그의 동료들은 일상생활의 문제거리가 스트레스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일상 생활에서의 문제척도(Daily Hassles Scales)"를 개발하여 스트레스 척도로 사용되고 있고, 생활사건에 촛점을 두어 Holmes와 Rahe(1967)에 의해 개발된 "사회재적응 척도"도 스트레스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

③ 역동적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이 개념은 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스트레스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자극 혹은 반응 그 자체가 아니고, 개인이 환경적 자극을 해석하고 요구(demand)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김정희, 1987).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는 그에 부가되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는지의 여부나 생활사건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개념은 상호작용론적 측면에서 즉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로 보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요인

주부들은 자아실현의 욕구로 말미암아 자신의 일에 대한 갈망과 가정내 역할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며 남성들은 다양해진 여성들의 역할에 대하여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전통적인 역할을 기대하는데서 긴장감과 갈등을 갖게 된다(이효재, 1971).

Croog(1970)는 가정생활속에서 가족 상호간에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 가정생활의 파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감, 가족 중 사망하는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타격등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불안감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나동석(1980)은 가족원간의 인간관계와 우환등을, 한영춘(1979)은 부부간의 성격차이, 사회문화적 배경의 상위, 역할기대의 차이, 의견대립, 성관계로 인한 긴장, 자녀교육문제나 방계친족들에 대한 문제등을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들고 있다.

또한 기혼 취업여성의 경우 비전문직 여성은 경제적인 문제에서, 전문직 여성은 성격문제·음주·남편의 집안일에 대한 무관심·오락·건강문제 등에서 심한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으며(신성자, 1981), 한남제(1971)는 성격차이·제정 곤란·친족·남편의 불성실 등을 공통적인 갈등의 근거로

설명하였다. Orden & Bradburn(1969)은 여성이 재정적인 압박에 의해서 취업을 하게되면 긴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으며 Nelson(1981)은 질병문제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광주(1988)는 주부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 요인을 자녀 양육태도·남편의 음주 및 늦은 귀가 시간·남편의 퇴직 및 질병·남편의 직업전환 및 사업실패·남편의 직장내에서의 책임감 증가 및 인간관계의 불화·경제적인 곤란·배우자의 사고나 중병 및 실직·부부간의 성생활등 8가지로 유형화하였고, 전업주부만을 대상으로 한 박난희(1987)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문제·경제문제·건강문제·가사노동문제로 나누어 측정한 결과, 공통적으로 경제적 영역에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신병리학적 측면에서 접근된 연구들이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정신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속에서 스트레스 요인들을 밝혀낸 것들이다. 배영숙(1982)은 여성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수위로 하여 심한 피로감·식습관의 변화·가족성원과의 다툼등을 들었으며, 심인숙(1981)은 여성 정신 장애의 유발요인으로 크게 배우자문제, 가정문제,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등의 4가지를 지적하였고, 또 한해경(1985)은 부부관계·자녀와의 관계·고부관계등을 포함하는 가족형태 및 구조로 인한 문제, 혼전 성관계, 결혼 후의 성적욕구결핍, 남편의 외도와 같은 성의 문제, 자아실현의 욕구와 현실간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등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설명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의 생활환경, 특히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결과로 가정의 성장·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고, 역으로 부정적인 결과, 즉 심각한 가족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3.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문제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주부들의 가정생활문제인지 정도와 스트레스 인지 수준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미비하므로 각

각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연 령

최근 연구(김윤주, 1977; 최태진, 1980; 이광주, 1988; 심인숙, 1981; 남유리, 1989; Uhlenhath, 1974; Apley, 1974; Jalowice, 1981; Brown, 1981)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연령과 전체적인 스트레스 수준과는 큰 통계적 의미가 없다는 상반된 연구결과(김영규, 1980; 박난희, 1987; 전세경, 1988)들도 다수 있다.

### 2)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스트레스 인지 수준은 이평숙(1984), 장병욱(1985)의 연구결과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이광주(1988)의 연구에서도 자녀양육 태도 영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혼년수가 높아질수록 연령증가에 의한 신체적 노쇠와 외모의 변화에 기인한 자존심의 상실에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Maeck(1978)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 3) 학 령

Gore와 Mangione(1983), 장병욱(1985), 남유리(1989)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인지하는 스트레스량과 심리적 손상은 적어진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학력과 스트레스 수준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는 연구(김윤주, 1977; 정민자, 1983; 송금순, 1984; 이광주, 1988; 전세경, 1988; Jalowice등, 1981)들도 상당수 있어 단편적으로 학력만으로 스트레스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 4) 취업여부

Booth(1977), 이동원(1976), 이종목(1985), 이정우·김경아(1990)은 기혼여성이 취업할 경우 가정과 직장의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오히려 비취업주부들 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하였고, Bernard(1976)는 어린자녀가 있고 보수가 적은 취업주부

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고 설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비취업주부가 취업주부에 비해 자신에 대해 느끼는 무가치함등의 정신적 갈등과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을수 있다는 상당수의 연구(Bart, 1971; 한혜경, 1985, 권경희, 1986; 남유리, 1989)들이 발표되어 있으며, Burke와 Weir(1977), 최승순(1987)도 취업주부가 비취업주부 보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더 양호하며 결혼자체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기혼여성의 취업여부가 단순히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취업동기, 직종, 직업만족도등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5)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스트레스량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Nye등, 1970; Gove등 1976; 송금순, 1984; 이광주, 1988), Uhlenhuth(1974)의 연구에서는 가족크기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언하면 자녀수가 주부의 스트레스량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자녀수가 많음으로써 생기는 가사노동의 증가, 경제적 부담의 증가등이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 6) 생활수준

몇몇 연구(Dohrenwend, 1973; Bernard, 1976; 김영규, 1977; 이평숙, 1980; 이광주, 1988) 결과 사회계층과 스트레스량과는 반비례 관계를 지닌다고 나타났으나 반면, 이들간에는 일률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상반된 연구(장병욱, 1985; 정민자, 1983; 전세경, 1988; 남유리, 1989)들도 존재한다.

또한 중류계층에서는 부모-자녀문제를 하류층에서는 가족부양문제를 심각한 문제영역으로 들고 있었으며(Hutchison, 1974) 정태경(1972)도 주거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가 하류계층으로 갈수록 높다고 하였다.

이정우·장병욱(1987)에 의하면 자신이 지각한

경제적 만족도와 주부의 스트레스수준을 연구한 결과 경제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지각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생활문제와 스트레스인지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주부의 연령, 결혼지속년수, 학력, 취업여부, 자녀수, 생활수준, 남편의 직업등 7개의 영역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주부가 지각한 가정생활문제와 스트레스 정도에 대한 관계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 정도는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주부의 연령·주부의 교육수준·남편의 직업·주부의 취업여부·결혼지속년수·자녀수·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 배경변인에 따라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정도는 어떠하며, 이는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 배경변인별로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 정도와 스트레스인지 정도간에는 관련이 있는가.

<가설 3-1>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정도 와 스트레스인지정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배경변인에 따라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정도 와 스트레스인지정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 2.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최소한 국민학교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주부를 의도적 다단계 유층표집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생활수준,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Y국민학교, D여자중학교, B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총 500부를 배부하여 42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중 부실한 것을 제외한 369부를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 하였다.

####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 1) 가정 생활문제인지도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고성희(1978), 김명자(1977), 장병옥(1985)등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55문항을 작성하였다.

가정생활문제는 부부문제(10문항), 자녀문제(10문항), 친인척문제(10문항), 가사작업수행문제(10문항), 건강문제(9문항), 경제문제(6문항)등 6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생활문제 인지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가정생활 문제의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부부문제( $\alpha=0.88$ ), 자녀문제( $\alpha=0.71$ ), 친인척문제( $\alpha=0.74$ ), 가사작업수행문제( $\alpha=0.74$ ), 건강문제( $\alpha=0.80$ ), 경제문제( $\alpha=0.81$ )이며, 전체적으로 볼때 Cronbach's  $\alpha=0.91$ 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 2) 스트레스인지 정도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원에 대응하여 개인에게 주위지는 부정적 정신건강 즉 문제거리나 근심을 겪을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 또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신체적 징후(발열, 두통, 식욕상실...) 및 불안·우울·적대감등의 심리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백기청, 홍강의, 1987;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 1989)를 기초로 해서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척도를 작성하였다.

이는 총 25문항 3점 리커트 척도로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분석은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배경변인	집단		빈도(%)	배경변인	집단		빈도(%)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25~35세	58( 15.7)	결혼지속년수	10년이하	46( 12.5)		
	36~45세	250( 67.8)		11~15년	112( 30.4)		
	46세 이상	61( 16.5)		16~20년	146( 39.6)		
	계	369(100.0)		21년 이상	65( 17.6)		
교육 수준	국졸	50( 13.6)	자녀 수	1~2명	166( 45.0)		
	중졸 및 중퇴	103( 27.9)		3명	143( 38.3)		
	고졸 및 중퇴	133( 36.0)		4명 이상	60( 16.3)		
	전문대 이상	83( 22.5)		계	369(100.0)		
	계	369(100.0)	생활 수준	중상 이상	88( 23.8)		
남편의 직업	비숙련직	47( 12.7)		중	176( 47.7)		
	판매관리직	70( 19.0)		중하 이하	105( 28.5)		
	사무직	152( 41.2)		계	369(100.0)		
	관리직	71( 19.2)		직업 유무	있다	117( 31.7)	
	전문직	29( 7.9)	없다		252( 68.3)		
계	369(100.0)	계	369(100.0)				

표 2-1.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 문제 인지도의 일반적 경향

구분	영역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 작업 수행 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전 체
M	3.71	3.28	3.70	3.81	3.91	3.09	3.50
SD	0.68	0.54	0.60	0.57	0.66	0.78	0.43

편차, 신뢰도, t-test, F-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s r 등을 구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과 같다.

##### 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도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도시주부의 가정생활 인지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도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경제문제'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자녀문제'이며,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의 산업화로 우리 가정이 점점 소비 지향적이 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과다한 교육비지출, 제한된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야하는 주부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 1) 배경변인과 가정생활문제인지도

배경변인에 따른 도시 주부의 가정생활문제인지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2-2와 같다.

###### ① 연 령

연령에 따른 가정생활문제인지도는 건강문제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5$ ).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건강문제에 있어서 인지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표 2-2. 배경변인과 가정생활문제 인지도

가정생활문제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작업 수행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전 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연령	25~35세	38.02		32.33		36.64		38.91		32.10	A	18.10		21.17	
	36~45세	37.14		32.66		37.21		38.08		30.42	AB	18.56		20.98	
	46세 이상	34.35		31.78		32.63		36.86		27.80	B	18.28		20.86	
	계	37.18		32.78		36.95		38.14		30.52		18.59		20.99	
	F값	0.58		1.46		0.39		0.70		2.85*		0.86		0.22	
교육수준	국졸	35.42		31.18	A	36.32		38.26		29.08	A	15.96	A	20.01	A
	중졸및중퇴	36.85		32.42	AB	37.34		37.78		30.16	A	17.76	B	20.75	AB
	고졸및중퇴	37.36		32.98	AB	36.93		38.39		30.39	A	19.09	C	21.13	BC
	전문대이상	38.37		33.84	B	36.86		38.08		32.02	B	20.36	D	21.67	C
	계	37.18		32.78		36.95		38.13		30.52		18.58		20.99	
F값	2.08		2.75*		0.34		0.23		2.97*		11.93***		4.80**		
남편의 직업	비숙련직	35.80	A	31.00	A	36.25		37.91		28.80		15.78	A	19.93	A
	판매관리직	36.91	AC	31.37	A	37.15		38.37		30.78		17.12	A	20.66	A
	사무직	36.40	AC	32.99	BC	36.54		37.36		30.32		18.61	BC	20.80	AB
	관리직	38.67	B	34.18	CD	37.92		39.01		31.73		20.70	D	21.97	C
	전문직	40.48	B	34.44	D	37.31		39.79		30.68		21.27	D	22.16	D
계	37.18		32.78		36.95		38.13		30.52		18.58		20.99		
F값	3.63**		4.52**		0.84		1.79		1.83		13.77***		6.74**		
직업유무	있다	36.50		32.29		36.31		38.01		31.23		18.07		20.08	
	없다	37.50		33.00		37.24		38.19		30.18		18.82		21.08	
	계	37.18		32.78		36.95		38.13		30.52		18.58		20.99	
t값	1.27		1.20		1.09		1.09		1.03		1.05		1.11		
결혼지속년수	10년이하	37.22		32.83		36.57		38.39		32.33		18.76	AB	21.22	
	11~15년	37.12		32.29		37.24		38.21		30.52		17.40	A	20.78	
	16~20년	37.79		33.23		37.21		38.18		30.59		19.62	B	21.31	
	21년이상	35.91		32.55		36.15		37.72		29.09		18.18	AC	20.50	
	계	37.18		32.78		36.95		38.13		30.52		18.58		20.99	
F값	1.15		0.66		0.61		0.15		2.74		5.16**		1.89		
자녀수	1~2명	37.33		33.23		37.55	A	38.13		31.23	A	18.65	AB	21.20	A
	3명	37.49		32.36		37.09	AB	38.36		30.55	AB	19.29	B	21.14	AB
	4명이상	36.07		32.50		34.95	C	37.60		28.47	C	16.72	C	20.06	C
	계	37.18		32.78		36.95		38.13		30.52		18.59		20.99	
F값	0.98		1.06		4.26*		0.38		4.93**		6.72**		4.71**		
생활수준	중상이상	37.18	A	33.73	A	37.51	A	39.61	A	31.20		22.00	A	22.18	A
	중	37.18	B	33.31	AB	37.43	AB	38.02	BC	30.37		18.76	B	21.10	B
	중하이하	35.12	C	31.09	C	35.68	C	37.09	C	30.20		15.43	C	19.82	C
	계	37.18		32.78		36.95		38.13		30.52		18.59		20.99	
F값	11.06***		7.51**		3.34*		4.89*		0.80		64.70***		22.24**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1

\*\*\*p<0.001

② 교육 수준

주부의 교육수준별 가정생활문제 인지정도에 있어서는 자녀문제( $p < .05$ ), 건강 문제( $p < .05$ ), 경제문제( $p < .001$ )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녀문제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동원(1976), 김명자(1977), 유영주(1979) 등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건강문제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문제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③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직업과 가정생활문제 인지도는 부부문제( $p < .01$ ), 자녀문제( $p < .01$ ), 경제문제( $p < .001$ )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편의 직업이 비숙련직이거나 판매관리직인 주부보다는 관리직이나 전문직에 속하는 주부들이 부부문제, 자녀문제, 경제문제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④ 직업유무

주부의 직업유무와 가정생활문제인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부의 직업이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혼만족도가 주부의 직업유무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 환경적 요인이나 주부 자신의 직업관에 관계가 있다는 연구로서 뒷받침된다(이정우, 1974; 박태운 1983).

⑤ 결혼 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별 가정생활문제인지 정도는 경제문제( $p < .01$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11~15년 사이인 집단과 16~20년, 21년 이상된 집단이 경제문제에 있어서 인지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가정생활주기상 자녀의 교육비가 증가하며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은퇴후의 시기에 해당하는 즉, 자원이 부족하고 적응이 요구되는 단계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⑥ 자녀수

자녀수와 가정생활문제인지도는 친인척문제( $p < .05$ ), 건강문제( $p < .01$ ), 경제문제( $p < .01$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녀수가 적은 집단보다 많은 집단의 주부들이 친인척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를 높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⑦ 생활수준

생활수준별 가정생활문제인지 정도는 건강문제를 제외한 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생활수준이 높은 집단이 부부문제, 자녀문제, 가사작업수행문제, 경제문제를 낮게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정도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도시 주부의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스트레스점수는 최저 34점에서 최고 73점까지 분포되어 있고, 전체 스트레스인지 정도의 평균이 57.78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크게 심각한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1) 배경변인과 스트레스인지정도

표 3-2에 의하면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비숙련직일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 정도가 크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배경변인이외에 스트레스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및 스트레스원에 관한 심층적

표 3-1. 스트레스 인지 정도의 일반적 경향

변 인	M	S.D	Minimum	Maximum
스트레스정도 (75점만점)	57.78	8.02	34.00	73.00

㉡-2. 배경변인과 스트레스 인지 정도

배경변인		스트레스		배경변인		스트레스	
		M	S.D			M	S.D
연령	25~35세	59.81	7.40	결혼 지속 년수	10년이하	59.13	8.27
	36~45세	57.42	7.96		11~15년	58.01	7.51
	46세 이상	50.33	8.29		16~20년	58.16	7.99
	계	57.78	8.02		21년이상	55.54	8.51
	F값	2.18			계	57.78	8.02
교육 수준	국졸	56.08	9.82	자 녀 수	1~2명	58.51	7.96
	중졸 및 중퇴	57.55	7.74		3명	57.76	7.41
	고졸 및 중퇴	57.61	7.61		4명이상	55.78	9.31
	전문대이상	59.34	7.69		계	57.78	8.02
	계	57.78	8.02		F값	2.56	
남편 의 직업	비숙련직	55.40	7.93	생활 수준	중상이상	59.36	7.63
	판매관리직	57.59	8.85		중	57.54	8.04
	사무직	57.59	8.16		중하이하	56.84	8.19
	관리직	58.97	6.23		계	57.78	8.02
	전문직	60.14	8.59		F값	2.54	
직업 유무	계	57.78	8.02	있다	57.66	8.02	
	F값	1.85			없다	57.83	8.04
직업 유무	계	57.78	8.02	유무	계	57.78	8.02
	t값	1.00			t값	1.00	

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가설 2>는 기각되었다.

4. 배경변인별 가정생활문제인지도와 스트레스 인지 정도간의 상관관계

주부들이 인지한 가정생활문제의 전영역은 스트레스 인지정도과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1). 즉 가정생활문제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 수준도 높아진다. 특히 주부들의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인지 수준도 높아지므로 주부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요인중의 하나가 가정생활문제중 건강문제와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문제의 해결이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완하시

키는 방안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는<가설 3-1>을 전면 긍정하는 것이었다. 또한 가정생활문제는 도시주부들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의 중요한 스트레스원임을 알 수 있었다.

1) 배경변인별 가정생활문제인지정도와 스트레스 정도간의 상관관계(표 4-2).

① 연 령

25~35세 주부들은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건강문제 영역에서 문제를 높게 인지할수록 스트레스인지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36~45세, 46세~55세 주부들은 가정생활문제의 전 영역과 스트레스인지 수준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30대중반이후 제반

표 4-1. 가정생활 문제와 스트레스 인지 정도간의 상관관계

가정생활문제 스트레스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작업 수행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스트레스	0.33**	0.25**	0.33**	0.27**	0.66**	0.54**

표 4-2. 배경변인별 가정생활 문제인지와 스트레스 인지 정도간의 상관관계

가정생활문제 스트레스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가사작업 수행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전 체
연령	25~35세	0.44*	0.34*	0.39*	0.28	0.63**	0.20	0.54**
	36~45세	0.24*	0.20**	0.29**	0.23**	0.68**	0.33**	0.50**
	46세 이상	0.51**	0.36*	0.41**	0.39*	0.64**	0.42**	0.67**
교육 수준	국졸	0.52**	0.10	0.60**	0.41*	0.77**	0.45**	0.70**
	중졸 및 중퇴	0.38**	0.22	0.25**	0.40**	0.64**	0.39**	0.56**
	고졸 및 중퇴	0.13	0.28*	0.30*	0.17	0.64**	0.10**	0.44**
	전문대이상	0.13	0.28*	0.30*	0.20	0.61**	0.40**	0.49**
남편 의 직업	비숙련직	0.26	0.18	0.29	0.31	0.59**	0.44**	0.56**
	판매관리직	0.44**	0.36*	0.36*	0.38**	0.77**	0.28*	0.61**
	사무직	0.34**	0.61	0.41**	0.26**	0.65**	0.26**	0.51**
	관리직	0.15	0.20	0.06	0.09	0.61**	0.23	0.35*
	전문직	0.19	0.44	0.34	0.29	0.72**	0.42	0.68*
직업 유무	있다	0.42**	0.24**	0.41**	0.35**	0.61**	0.23**	0.55**
	없다	0.28**	0.25**	0.30**	0.33**	0.69**	0.37**	0.53**
결혼 지속 년수	10년이하	0.53**	0.24	0.54**	0.41*	0.57**	0.30**	0.61**
	11년~15년	0.26*	0.29*	0.33**	0.27*	0.69**	0.38**	0.54**
	16~20년	0.18	0.19	0.11	0.16	0.69**	0.25*	0.43**
	21년이상	0.51	0.32*	0.56**	0.36*	0.62**	0.44**	0.67**
자녀 수	1~2명	0.41**	0.34**	0.43**	0.39**	0.69**	0.38**	0.61**
	3명	0.14	0.54	0.12	0.10**	0.61**	0.21**	0.36**
	4명이상	0.46**	0.34*	0.42**	0.27	0.69**	0.35*	0.62**
생활 수준	중상이상	0.34**	0.37**	0.31*	0.24	0.72**	0.30*	0.60**
	중	0.29**	0.23*	0.29**	0.19*	0.67**	0.33**	0.49**
	중하이하	0.33**	0.15	0.41**	0.37**	0.61**	0.29*	0.57**

\*p<0.01

\*\*p<.001

가정생활문제가 복잡해지므로써 그만큼 스트레스 인지 정도도 커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문제는 스트레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으며, 46세이상 즉 중년기 주부의 부부문제가 스트레스와의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② 교육수준

국졸집단과 중졸 및 중퇴집단에서는 자녀문제 영역을 제외한 모든 가정생활문제 영역에서 스트

레스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및 중퇴집단에서는 부부문제, 자녀문제, 친인척문제, 건강문제, 경제문제 영역에서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력수준의 차이에 관계없이 건강문제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저학력주부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가 자녀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저학력 주부들의 자녀문제관심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 ③ 남편의 직업

남편의 직업이 비숙련직에 속하는 주부들은 건강문제와 경제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남편의 직업이 판매관리직인 주부들은 모든 가정생활영역에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를 보였고, 남편의 직업이 사무직인 주부들은 자녀문제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남편의 직업이 관리직과 전문직에 속하는 주부들은 건강문제 영역에서만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므로써 타집단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④ 직업유무

주부의 직업유무에 따른 가정생활문제의 각 영역과 스트레스인지수준은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주부가 취업을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간에 가정생활문제를 많이 지각할수록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결혼지속년수

결혼지속년수가 10년이하인 주부들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은 자녀문제를 제외한 전영역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11~15년, 21년이상된 주부들은 모든 가정생활문제 영역에서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16~20년된 주부들은 건강문제와 경제문제영역에서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 ⑥ 자녀수

자녀수가 1~2명인 주부들은 가정생활문제 전 영역에서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3명인 주부들은 건강문제와 경제문제, 4명 이상인 주부들은 가사작업수행문제를 제외한 전 가정생활문제 영역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자녀수는 가정생활문제와 스트레스인지 수준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

료된다.

### ⑦ 생활수준

생활수준이 중상이상인 집단은 가사작업수행문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중하이하인 집단은 자녀문제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생활수준이 중인 집단은 전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람의 생활환경 특히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설 3-2는 긍정되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산업화·도시화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족들이 외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주부가 느끼고 있는 가정생활문제를 파악하고 주부가 인지하고 있는 스트레스 정도를 규명하며, 가정생활문제와 스트레스인지 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 인지도를 하위영역별로 보면 '경제문제'를 가장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다음은 '자녀문제'이며, '건강문제'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의 산업화로 우리 가정이 점점 소비지향적이 되고 있으며, 비현실적인 주택가격, 과다한 교육비지출, 제한된 소득으로 가계를 운영해야하는 주부들의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사료된다.

2) 도시주부의 가정생활문제는 연령·교육수준·남편의 직업·결혼지속년수·자녀수·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직업유무는 가정생활문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3) 배경변인별 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정도를 살펴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남편의 직업이 비숙련직일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수준과 가정생활 문제의 각 영역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정생활의 전 영역에서 문제를 높게 인지하는 주부들의 스트레스 인지수준도 높았다. 즉 가정생활문제인지 정도와 스트레스 인지 수준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5) 주부들의 배경변인별 가정생활문제의 각 영역과 스트레스인지 수준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은 주부들의 스트레스원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부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실점에 적합한 주부들의 가정생활문제 및 스트레스인지 정도에 관한 구조화된 설문지의 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스트레스정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인에 관하여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셋째, 주부의 스트레스인지 정도와 가정생활의 전 영역과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부들의 가정생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며, 특히 모자보건적인 측면에서 주부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인 지지가 시급하다고 본다.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부 스스로가 가정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가정생활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 참고문헌

- 1) 권경희(1986). 한국 도시 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2) 김경아(1990).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stress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대석사학위논문.
- 3) 김명자(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규(1977). 연령, 성, 사회계층별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와 적응방법의 비교.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5) 김영철·정향균·이시형(1989). 일반성인에서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증상 및 신체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 6) 김윤주(1977). 일반인과 정신과 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7) 김정일·정인파·곽동일(1989). 전환장애와 신체화 장애의 임상적 비교연구. *신경정신의학* 26(2), 306-313.
- 8) 김정희(1973).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 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9) 남명희(1973) 주부의 시간관리 실태조사. *강릉교육대학논문집* 5.
- 10) 남유리(1989).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스트레스 지각에 관한 비교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11) 민성길(1987). 최심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12) 박난희(1987).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 적응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13) 박민숙(1985). 가정생활에서 주부가 받는 스트레스 요인과 그 적응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 14) 박태은(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 139-150.
- 15) 배영숙(1982). 정신질환의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16) 백기청(1987). 스트레스 요인으로서의 생활사건과 통제 소재 및 불안의 관계에 대한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17) 송금순(1984). 일부 도시 생활인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해소에 관한 조사 연구. *춘천 간호 보건의전문대 논문집* 14, 35-80.

- 18) 신성자(1981). 기혼 취업여성의 부부 적응에 관한 연구. 중대 석사학위논문.
- 19) 심인숙(1981). 여성정신장애의 유발요인에 관한 연구. 중대석사학위논문.
- 20)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상의 문제. *서울대 논문집 2*.
- 21) 윤복자(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13(2)*, 59-77.
- 22) 윤양현(1986). 현대 한국 부부관계의 갈등유형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 학위논문.
- 23) 이광주(1988).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석사 학위논문.
- 24) 이동원(1976). 직업여성의 이중역할에 관한 연구. *이대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27*, 229-266.
- 25) 이세종(1974). 우석병원 신경정신과 외래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83*, 336-342.
- 26) 이정우(1974). 전문직 여성의 가족관계관. *숙대 아세아여성연구 13*, 153-178.
- 27) 이정우·장병옥(1987). 기혼여성의 의사소통 유형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숙대아세아여성연구 26*, 215.
- 28) 이종목(1985). 조직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요인 및 그 조정변인에 관한 소고. *행동과학연구 7*, 231-24
- 29) 이평숙(1984).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대 박사학위 논문.
- 30) 이효재(1973). 가족과 사회. 서울 : 민조사.
- 31) 임정빈·정혜경(1986).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1.
- 32) 장명옥(1976).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에 관한 연구. 장명옥교수 회갑기념 논문.
- 33) 장병옥(1985). 도시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대석사 학위논문.
- 34) 전세경(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대 석사학위논문.
- 35) 정민자(1983). 부부 가족의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 자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 36) 정정순·이광규(1973). 가족관계. 한국방송통신 대학.
- 37) 정태경(1972).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에 관한 고찰. 고대 석사학위논문.
- 38) 최승순(1987).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우울성향 비교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39) 최태진(1980). 한국에 있어서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40) 한남제(1971).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문제 : 핵가족제도하에서의 부부관계. *경북대 논문집 15*, 107-120.
- 41) 한영춘(1979). 한국 가정 형태와 청소년 문제. 서울 : 여문각.
- 42) 한혜경(1985). 한국 도시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 43) 황애란(1984). 스트레스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 *대한간호 2394*, 38-49.
- 44) Apley, J.(1974). The significance of life events. *Developmental Medical Child Neurology 16*, 218-219.
- 45) Bart, P.B.(1970).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In Gornick V & Moram BK(Eds), *Women in sexist society : studies in power and powerlessness*. New York : Basic Books.
- 46) Bernard, J.(1976). Stress and the family. *Journal of Home Economics 68(5)*, 6-10.
- 47) Booth, A.(1977).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 A replication and refu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4)*, 645-660.
- 48) Brown, G.W.(1981). Life events, Psychiatric disorder and physical illnes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3(5)*, 461-473.
- 49) Burgess, Z.W. & Locke, H.J.(1960). *The Family*. New York : American Book Co.
- 50) Burke, R.J. & Weir, T.(1977). Marial helping relationships : The moderators between stress and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y 95*, 121-130.
- 51) Croog, S.H.(1970). The family as a source of stress : In *Social stress*. Aldine Publishing Co.
- 52) Dohrenwend, B.S.(1973). Life events as stressors : A methodological inquir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4*, 167-175.
- 53) Gore, S. & Mangione, T.W.(1983). Social roles, sex roles and psychological distress : Additive and interactive models of sex difference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300-312.

- 54) Gove, W.R. & Greeken, M.R.(1977). The effect of children and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and women. *Social Forces* 56, 66-67.
- 55) Hammond, L.A.(1987). Stress and rol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hardiness, coping strategies, and gender In academic multiple role. University of florida 박사학위논문 (UMI)
- 56) Hutchison, I.W.(1974).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conjugal communication in a transitional socie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3), 580-587.
- 57) Jalowice, A. & Powers, H.J.(1981). Stress and coping in hypertensive and emergency room patients. *Nursing Research* 30(1), 10-15.
- 58) Kobasa, S.C.(1979). Stressful life events personality and health an inquiry in to hard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 59) Mareck, J.(1978). Psychological Disorders in Women : Indices of Role Strain. In Frieze IH, Parsons JB, Johnson PB, Ruble DN & Eell man GL (Eds) *Women and sex roles*. New York : W.W. Norton and Company Inc.
- 60) McGrath, J.E.(1978). Stress and Behavior in Organizations. In Dunnette MP(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hysiology*. Chicago : Rand McNally.
- 61) Nelson, P.T. & Nelson, C.W.(1981). Personal and family stress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13(3), 34-36.
- 62) Nye, F.I. & Carlson, J.(1970). Family size interaction affect and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2).
- 63) Orden, S.R. & Bradburn N.(1969). Working wives and marital happi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4(4), 382-407.
- 64) Rabkin, J.G. & Struening, E.L.(1976). Life events, stress and illness. *Science* 194, 1013-1020.
- 65) Steers, R.M.(1984). *Introduction to Organization Behavior* . 2nd ed. Glenview, Illiscott, foresman and company.
- 66) Uhlenhuth, E.H.(1974). Symptom intensity and life stress in the city. *Archives General Psychiatry* 31(6), 757-767.